

‘N포’와 ‘4B’에 가려진 성별화·계층화된 청년세대의 친밀성 변동¹⁾

2021. 9. 24.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문제제기

- 오늘날 청년세대의 친밀성 위기를 표현하는 담론으로 ‘N포세대’와 ‘4B운동’이 대표적임.
- ‘N포’는 연애나 결혼·출산 등 가족 형성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는 문제를 청년세대 담론의 주요 테마로 구성하며, 일자리, 소득, 주거 등 경제적 위기 해소를 친밀성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함. 그러나 이는 점차 해체되어 가는 남성 생계부양자의 표준적 생애주기 달성을 청년 ‘일반’의 과업이자 전 사회적 과제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물젠더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함(배은경 2015).
- ‘청년 여성 버전’의 친밀성 위기 담론의 등장은 이러한 청년세대 주류 담론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음. ‘4B(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 운동은 2010년대 후반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 대중화된 페미니즘 실천의 한 갈래로 출현하였고, 이성애주의와 근대적 핵가족 모델에 내재한 젠더 불평등에 대한 급진적 문제제기를 담고 있음. 이러한 비판은 친밀성 실천 및 가족형성을 경제 문제가 아닌 젠더/섹슈얼리티 문제로 전환하고, 청년 ‘일반’에 가려져 주변화되었던 청년 여성의 위기를 드러냄(정성조 2019).
- 그럼에도 두 가지 친밀성 위기 담론은 오늘날 청년세대 남녀가 직면한 친밀성 위기의 폭과 깊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지연시킨 측면이 있음. 섹슈얼리티나 가족 구성에 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경험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친밀성 이슈를 둘러싼 남녀 간의 갈등을 ‘비용 아니면 불평등(또는 폭력)’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결혼이나 부모됨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이 약화되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성애 핵가족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친밀성 실천이 청년세대 내부에서 어떻게 모색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
- 또한 기존의 친밀성 담론은 성별화·계층화된 친밀성 위기의 복합적 양상을 포착하기 어렵게 함. 특히 청년 여성이 직면한 친밀성 위기를 가족 내 존재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노동하는 개인으로서 자율성을 추구할 때 겪는 고충으로 표상해 온 논의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부족이 청년 여성의 친밀성 실천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비가시화한 측면이 있음.
 - 김영미(2016)가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친밀성 위기는 성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층화되어 있음. 성별과 계급의 교차가 청년세대 내부의 친밀성 위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위기의 성격뿐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선택과 실천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1) 이 발표문은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마경희·추지현·김애라·김원정·이은아·조영주·전원근·문희영·김지효(2020).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의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임.

- 이 글은 경제적 위기와 젠더 불평등을 주로 문제화한 기존의 친밀성 위기 담론이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던, 청년세대 친밀성 실천의 성별화·계층화된 복합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임.
- 2020년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 19세~34세 청년 남녀 6,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지 조사 결과 중 연애, 동거, 결혼, 출산 경험 및 인식에 대한 기초 분석을 통해 성별화·계층화된 친밀성 위기의 주목할 만한 현상과 쟁점들을 탐색해 보고자 함.

2.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질문지 조사 개요²⁾

〈표 1〉 질문지 조사 개요

	청년	청소년
모집단	전국의 만19세~39세 남녀	전국의 만15세~18세 남녀(대학 입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제외)
조사 표본수	8,917명(여성 4,313명, 남성 4,604명)	1,184명(여성 605명, 남성 579명)
표본추출	2020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 할당	2020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 할당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CAWI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CAWI
가중치부여	지역, 성별, 연령별 셀가중치 부여	지역, 성별, 연령별 셀가중치 부여
가중치 적용 표본수	8,917명(여성 4,282명, 남성 4,635)	1,184명(여성 569명, 남성 615명)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기간	2020년 10월17일~11월 4일	2020년 11월11일~11월 23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주)한국리서치

○ 분석 대상(만19~34세 청년 조사참여자)의 응답자 특성

〈표 2〉 만19~34세 청년 조사참여자의 특징

(단위: 명, %)

		여성	남성	전체
전체		3,135(100.0)	3,435(100.0)	6,570(100.0)
연령	만19~24세	1,150(36.7)	1,253(36.5)	2,403(36.6)
	만25~29세	1,037(33.1)	1,159(33.7)	2,196(33.4)
	만30~34세	948(30.2)	1,023(29.8)	1,971(30.0)
지역	서울	730(23.3)	702(20.4)	1,432 (21.8)
	수도권	1,022(32.6)	1,121(32.6)	2,143(32.6)
	지방	1,383(44.1)	1,612(46.9)	2,995(45.6)
학력	고졸 이하	550(17.5)	606(17.6)	1,156(17.6)

2) 본 연구는 현재 청년세대의 젠더 이슈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를 생애과정 맥락에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바, 질문지 조사 외에도 만15세~34세 청년·청소년 63명에 대한 생애사 면접조사도 실시하였음.

		여성	남성	전체
	대학생	815(26.0)	1,220(35.5)	2,035(31.0)
	대학 졸업 이상	1,771(56.5)	1,608(46.8)	3,379(51.4)
혼인상태	비혼	2,552(81.4)	3,060(89.1)	5,612(85.4)
	기혼	562(17.9)	363(10.6)	925(14.1)
	별거·이혼·사별	21(0.7)	12(0.3)	33(0.5)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일	취업자(일시휴직포함)	1,718(54.8)	1,823(53.1)	3,541(53.9)
	취·창업 준비	368(11.7)	468(13.6)	836(12.7)
	진학 준비	51(1.6)	95(2.8)	146(2.2)
	학업(재학·휴학)	615 (19.6)	731(21.3)	1,346(20.5)
	가사·양육·돌봄	205(6.5)	11(0.3)	216(3.3)
	군입대 대기	-	89(2.6)	89(1.4)
	무직(특별히 하는 일 없음)	178(5.7)	217(6.3)	395(6.0)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최)하층	683(21.8)	763(22.2)	1,446(22.0)
	중하층	1,026(32.7)	1,062(30.9)	2,088(31.8)
	중층	1,070(34.1)	1,096(31.9)	2,166(33.0)
	중상층 이상	356(11.4)	514(15.0)	870(13.2)

주: 가중치를 적용한 값으로 반올림이 적용되어 셀 안의 사례수의 합이 교차표의 전체값과 다를 수 있음.

3. 분석 결과

□ 연애 경험 및 의향

- 자신의 주관적 계층 지위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청년 남녀의 연애 경험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적었고, 남성의 격차만 통계적으로 유의함.
- 생애사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생존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나 비용 부담 등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또래에 비해 이뤄낼 게 없다’는 무력감이나 낮은 자존감 또한 연애를 꺼리는 이유로 들.

〈표 3〉 연애 경험(성*하위집단별)

(단위: %)

		여성		남성		전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전체	81.4	18.6	79.5	20.5	80.4	19.6
	χ^2	3.99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최)하층	77.7	22.3	74.4	25.6	76.0	24.0
	중하층	82.4	17.6	80.7	19.3	81.5	18.5
	중층	82.6	17.4	81.5	18.5	82.0	18.0
	중상층 이상	82.0	18.0	80.3	19.7	81.0	19.0
	χ^2	7.812		15.884**		23.448***	

	여성		남성		전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주: 1) *p<.05, **p<.01, ***p<.001

2) 연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① 현재 연애 중임 ②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경험 있음 ③ 현재 경험 없음으로 응답하도록 했음. '있음'은 '① 현재 연애 중임'과 '②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경험있음'에 대한 응답자의 백분율임.

-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청년에게 향후 연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여성은 약 20%, 남성은 14% 정도가 연애 의향이 없다고 답함. 계층 지위에 따른 연애 의향 차이가 남녀 모두 유의했으며 그 격차는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남.

〈표 4〉 향후 연애 의향(성*하위집단별)

(단위: %)

		여성(N=2,573)	남성(N=3,072)	전체(N=5,645)
전체	전체	80.8	86.0	83.7
	χ^2	27.660***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최)하층	73.8	83.2	79.0
	중하층	82.3	86.1	84.3
	중층	83.6	86.1	84.9
	중상층 이상	82.3	89.9	87.0
	χ^2	24.546***	10.621*	29.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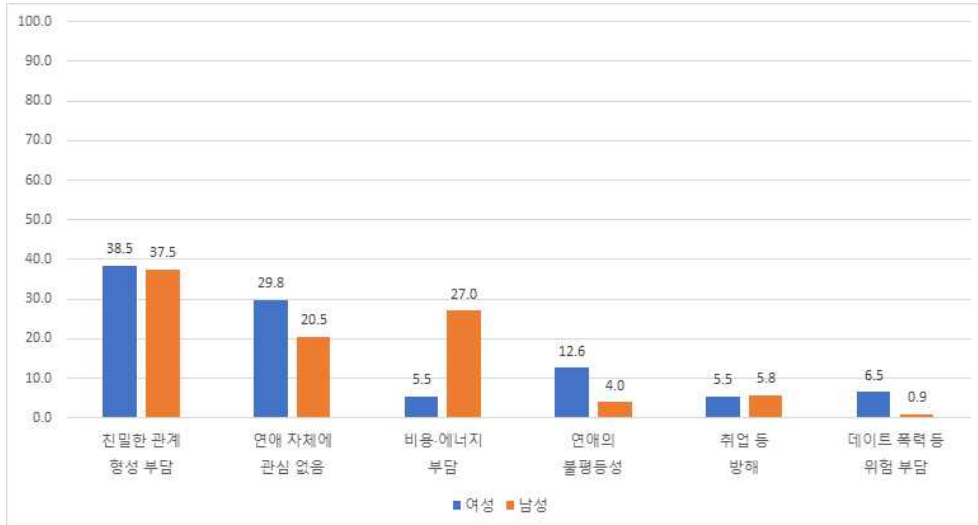
주: 1) *p<.05, **p<.01, ***p<.001

2) 미혼 또는 이혼/사별/별거인 경우만 응답함.

3) 셀 안의 값은 향후 연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백분율임.

- 연애 의향이 없는 이유(1순위)를 보면 남녀 모두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과 피로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음. '다른 사람과 관계에 매이기 싫어서',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주는 것이 피곤해서' 연애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점은 경제적 부담이나 성별화된 연애 각본에 대한 거부감으로 설명되지 않는 친밀성 위기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줌.

- 생애사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친밀한 상대라는 이유로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싫다',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싫다', '상대방에게 애착을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감정이 부담스럽다' 등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애 의향이 없는 이유에서 계층 지위에 따른 차이는 남성만 유의했는데, 하층 남성에서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음' 응답(12.7%)이 중하층 이상(19~29%)보다 적고, '연애가 불평등하고 성차별'이라는 응답(7.6%)이 다른 집단(0.8~4.5%)보다 많다는 점이 주된 차이점임.



- 주: 1) 향후 연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함.
 2) 그림의 값은 다음과 같이 질문지 보기의 응답 비중을 합친 것임.
 -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매이는 것이 싫어서 +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주는 것이 피곤해서
 - 비용·에너지 투여에 대한 부담: 데이트 비용 부담이 커서 + 이벤트 등 관계 유지를 위한 부담이 커서
 - 연애가 불평등하고 성차별적: 화장, 외모 가꾸기 등 꾸밈 노동을 해야 해서 + 원하지 않더라도 성관계 요구에 응해줘야 해서 + 연애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서
 - 데이트 폭력 등 위험 부담: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폭력 피해가 걱정되어서

[그림 1] 향후 연애 의향 없는 이유(1순위)(성별)

□ 동거 경험

○ 애인, 파트너와 현재 동거 중인 응답자는 전체의 3.4%, 과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14.2%로, 이 둘을 합하여 과거 또는 현재 동거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7.6%임. 동거 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약간 더 많았음.³⁾

- 계층 지위에 따른 동거 경험의 차이는 여성만 유의, 청년 여성은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과거 또는 현재 동거 경험이 모두 유의하게 많았음.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남녀 모두 유의하다는 점도 특이함. 여성은 서울보다 지방·수도권 여성의 동거 경험이 많고, 남성은 서울 거주자의 동거 경험이 더 많았음.

〈표 5〉 동거 경험 유무(성*하위집단별)

(단위: %)

		여성			남성			전체		
		현재 하고 있음	과거 경험 있음	동거 경험 없음	현재 하고 있음	과거 경험 있음	동거 경험 없음	현재 하고 있음	과거 경험 있음	동거 경험 없음
전체	전체	3.3	11.1	85.6	3.4	17.0	79.6	3.4	14.2	82.4
	χ^2	46.728***								

3)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거 경험 여부를 파악하는 공식 통계가 없어 다른 연령대와의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지만, 혼인신고 전에 1년 이상 동거한 부부가 2015년 기준 10.8%(20대 12.7%, 30대 8.7%)라는 혼인신고 자료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김원정·김순남, 2018) 꽤 큰 비중이라고 할 수 있음.

		여성			남성			전체		
		현재 하고 있음	과거 경험 있음	동거 경험 없음	현재 하고 있음	과거 경험 있음	동거 경험 없음	현재 하고 있음	과거 경험 있음	동거 경험 없음
주관적 사회경 제적 지위	(최)하층	6.0	15.3	78.7	3.6	17.2	79.3	4.7	16.3	79.0
	중하층	3.2	11.3	85.5	3.4	16.9	79.7	3.3	14.1	82.6
	중층	2.5	8.8	88.7	3.1	16.7	80.1	2.8	12.8	84.3
	중상층 이상	1.1	9.2	89.7	4.0	17.3	78.8	2.8	14.0	83.2
	χ^2	44.932***			0.877			21.124**		
지역	서울	2.9	8.5	88.6	3.3	20.1	76.6	3.1	14.2	82.7
	수도권	3.0	11.0	86.0	2.4	15.7	81.9	2.7	13.4	83.9
	지방	3.8	12.5	83.7	4.2	16.5	79.3	4.0	14.7	81.3
	χ^2	9.882*			13.354**			9.421		

주: 1) *p<.05, **p<.01, ***p<.001

- 동거의 주된 이유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생활비 절약, 결혼 배우자로 적합한지 알아보려고 응답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고, 남성은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가족이 결혼을 반대해서 응답 비중이 여성보다 더 높았음.

〈표 6〉 주된 동거 이유(성별)

(단위: %)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주거비 등 각자의 생활비 절약을 위해	결혼할 배우자로 적합한지 알아보려고	기타	부모님 등 가족이 결혼을 반대해서
전체(N=1,153)	31.4	27.9	24.3	10.3	6.1
여성(N=452)	26.4	31.8	26.4	13.2	2.2
남성(N=701)	34.6	25.3	23.0	8.5	8.6

주: 1) *p<.05, **p<.01, ***p<.001

2) 현재 혹은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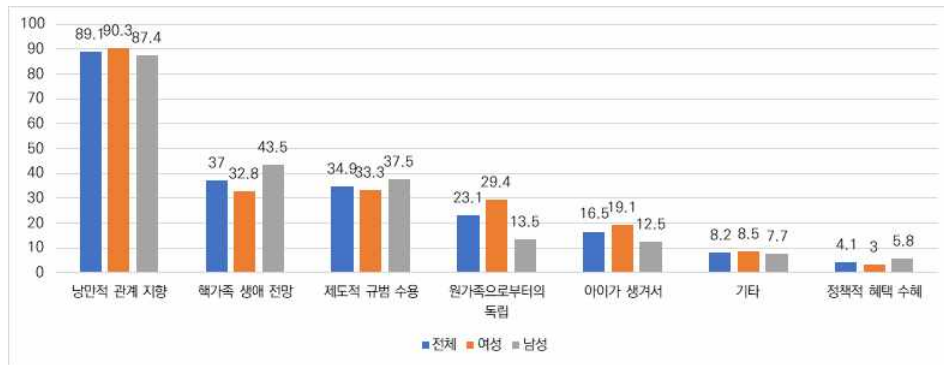
- 동거 이유에서 여성은 지역이나 계층 지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서울·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에 비해, 하층·중하층인 응답자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생활비 절약의 응답 비중이 높았음. 남성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남성은 계층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 등의 반대로 결혼제도에 진입하지 못했을 때 일종의 ‘의사 결혼’으로서 동거가 더 많았다는 점이 특이함.
-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많지 않고 서울·수도권에 살면서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여성들에게 애인, 파트너와의 동거가 친밀성 욕구 충족의 수단이자 ‘생존’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시사함.

□ 결혼 경험 및 의향

-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14.1%이며, 남성이 10.6%, 여성이 17.9%로 여성 기혼자 비중이 좀 더 많았음.

○ 결혼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1~3순위 복수응답) 낭만적 관계 지향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형적 핵가족 생애 전망에 대한 기대 37.0%, 결혼을 누구나 거쳐야 하는 단계로 수용한 경우 34.9% 등이 많았음.

- 남성은 핵가족 형성에 대한 기대와 제도적 수용성에 관련된 응답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아이가 생겨서라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주: 1) 기혼자만 응답

2) 그림의 값은 다음과 같이 질문지 보기의 응답 비중을 합친 것임.

- 낭만적 관계 지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서
- 핵가족 생애 전망: 아이를 갖고 싶어서 + 노후에 외롭지 않으려고
- 제도적 규범 수용: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니까 + 내가 결혼하기를 부모님이 원해서
-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 기타: 직장을 그만다니고 싶어서 + 성적 욕구의 해소 + 기타
- 정책적 혜택 수혜: 주택 분양이나 임대 등 신혼부부 혜택을 받으려고

[그림 2] 성별 결혼한 이유(1+2+3순위)

○ 결혼한 이유를 성별 및 계층 지위별로 보면, 남녀 모두 이성애 핵가족 생애 전망에 대한 기대는 중상층 이상 청년에서 높은 편임(특히 남성). 주목할 점은 여성은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아이가 생겨서’ 응답 비중이 높고, 계층 지위가 높을수록 낭만적 관계 지향,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의 응답 비중이 높다는 점임.

-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청년 여성에서 성·재생산 권리 실현, 관련 정보·서비스 접근성이 친밀성 실천과 가족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7〉 결혼한 이유(복수응답)(성*하위집단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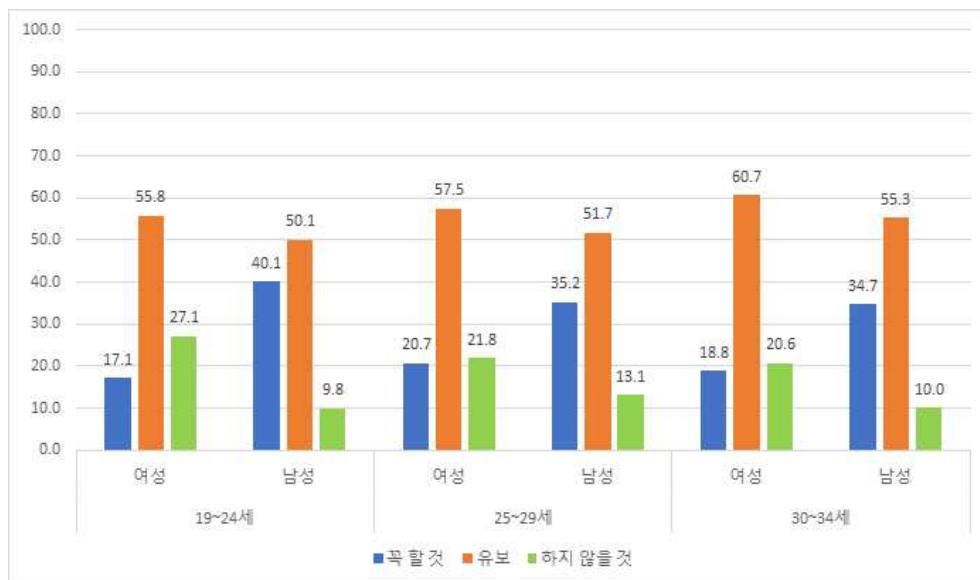
		낭만적 관계 지향	핵가족 생애 전망	제도적 규범 수용	원가족으 로부터의 독립	아이가 생겨서	기타	정책적 혜택 수혜
여성	계(N=562)	90.3	32.8	33.3	29.4	19.1	8.5	3.0
	(최)하층	82.5	33.3	34.2	28.8	35.1	8.7	5.3
	중하층	89.9	32.5	32.5	27.0	21.2	8.4	2.2
	중층	94.8	31.9	33.3	31.4	10.9	8.0	2.9
	중상층 이상	90.4	35.6	33.9	30.7	11.2	9.7	1.6

		낭만적 관계 지향	핵가족 생애 전망	제도적 규범 수용	원가족으 로부터의 독립	아이가 생겨서	기타	정책적 혜택 수혜	
남성	계(N=363)		87.4	43.5	37.5	13.5	12.5	7.7	5.8
	주관적 사회경제 적 지위	(최)하층	90.4	41.4	41.2	17.6	15.8	5.9	9.8
		중하층	89.2	40.0	35.8	11.8	15.0	6.3	4.0
		중층	84.7	42.6	41.6	14.9	6.4	7.2	6.5
		중상층 이상	86.7	59.0	24.7	8.9	20.5	15.7	4.5

주: 1) 기혼자만 응답함.

○ 다음으로 비혼자(미·비혼과 이혼·별거·사별) 5,645명에게 결혼 의향을 물어본 결과, 꼭 할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 18.7%, 남성 37.1%로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고 성별 격차는 초기 청년에서 더 높아 향후 친밀성 실천에서 청년세대의 남녀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결혼 의향을 계층 지위별로 보면 남성뿐 아니라 여성 역시 하층 또는 중하층에서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유의하게 높았음.



[그림 3] 향후 결혼 의향(연령*성별)

〈표 8〉 향후 결혼 의향(성*하위집단별)

(단위: %)

		여성(N=2,573)			남성(N=3,072)			전체(N=5,645)		
		꼭 결혼할 것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꼭 결혼할 것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꼭 결혼할 것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18.7	57.4	23.9	37.1	51.9	11.0	28.7	54.4	16.9
전체	χ^2	309.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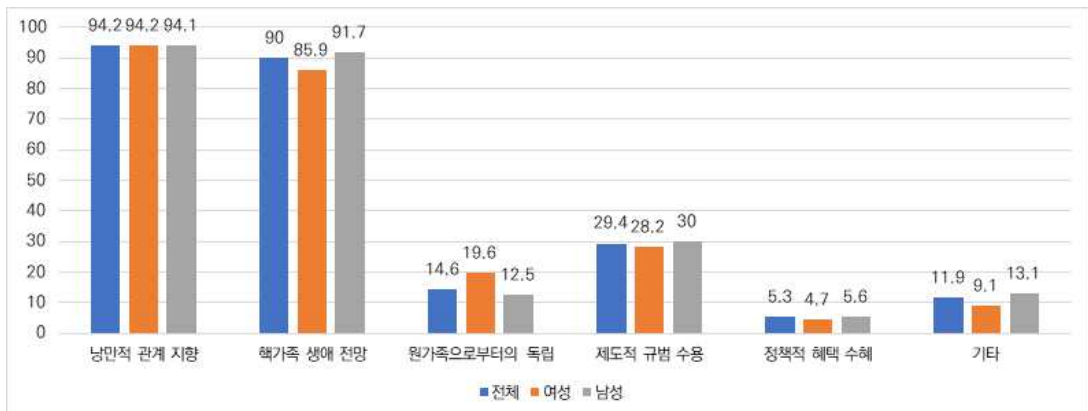
		여성(N=2,573)			남성(N=3,072)			전체(N=5,645)		
		꼭 결혼할 것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꼭 결혼할 것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꼭 결혼할 것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주관적 사회경 제적 지위	(최)하층	15.6	56.4	27.9	28.8	57.4	13.8	23.0	57.0	20.1
	중하층	16.8	60.1	23.1	33.4	53.0	13.6	25.5	56.4	18.1
	중층	21.1	57.0	21.9	42.0	48.9	9.1	32.1	52.7	15.2
	중상층 이상	23.2	52.8	24.0	46.8	47.6	5.6	37.7	49.6	12.7
	χ^2	17.878**			69.200***			77.278***		

주: 1) * p<.05, ** p<.01, *** p<.001

2) 미혼 또는 이혼/사별/별거인 경우만 응답함.

○ 결혼을 꼭 하겠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앞의 기혼자 응답에 비해 핵가족 생애 전망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음. 이 응답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낮고,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한 응답이 남성에 비해 더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음.

- 계층 지위별로 보면 남성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여성은 계층 지위가 높을수록 제도적 수용도가 높고, 지위가 낮을수록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꾀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그림 4] 성별 결혼하려는 이유(1+2+3순위)

〈표 9〉 결혼하려는 이유(복수응답)(성*하위집단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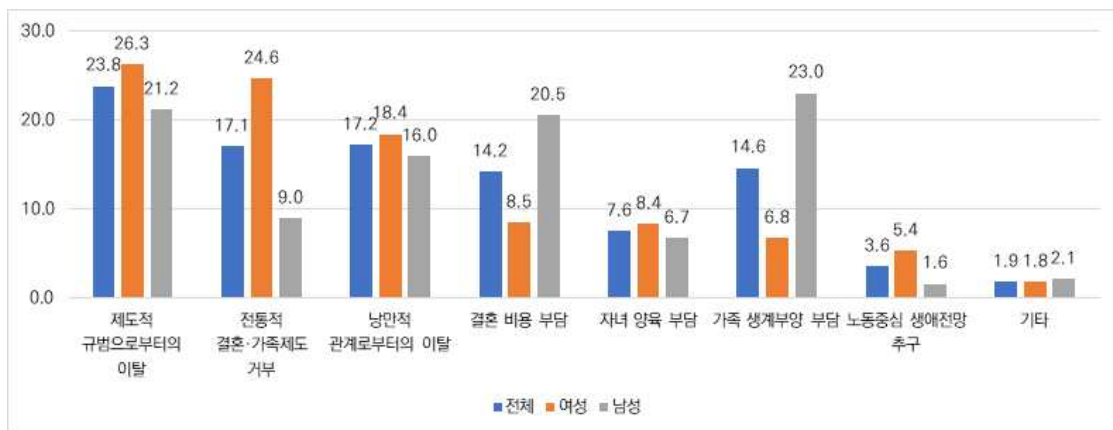
		낭만적 관계 지향	핵가족 생애 전망	제도적 규범 수용	원가족으 로부터의 독립	기타	정책적 혜택 수혜
여성	계(N=482)	94.2	85.9	28.2	19.6	9.1	4.7
	(최)하층	93.3	80.8	17.6	22.3	10.1	7.7
	중하층	93.7	92.2	23.1	21.5	10.4	2.8
	중층	95.0	81.4	33.6	18.5	7.7	5.4
	중상층 이상	94.2	91.4	38.2	14.7	8.8	2.9

		낭만적 관계 지향	핵가족 생애 전망	제도적 규범 수용	원가족으 로부터의 독립	기타	정책적 혜택 수혜
남성	계(N=1,139)	94.1	91.7	30.0	12.5	13.1	5.6
	주관적 사회경제 적 지위	(최)하층	94.5	93.0	22.6	14.2	7.4
		중하층	92.8	90.9	31.5	12.0	5.2
		중층	94.7	90.5	31.4	11.4	5.3
		중상층 이상	94.5	94.0	32.0	13.4	5.0

주: 1) 비혼 청년 중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한 문항에서 '꼭 결혼할 것'이라고 답한 경우만 응답함.

○ 결혼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굳이 결혼을 할 이유가 없어서'가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남녀의 응답 결과는 기존 결혼·가족제도가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했던 성역할 기대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청년 남녀의 인식을 잘 보여 줌.

-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여성은 계층 지위가 높을수록 낭만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추구, 노동중심 생애전망 추구 응답이 높지만, 계층 지위가 낮은 여성은 결혼 비용 부담, 가족 생계부양에 대한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중이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
- 남성의 경우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결혼 비용과 생계 부담을 꼽은 경우가 많지만, 중상층 이상 남성은 기존의 제도적 규범이나 낭만적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선택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주: 1) 향후 결혼 의향 문항에서 '결혼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그림의 값은 다음과 같이 질문지 보기의 응답 비중을 합친 것임.

- 제도적 규범으로부터의 이탈: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 전통적 결혼·가족제도 거부: 명절, 제사 등 전통적 가족 문화가 싫어서 + 시집·처가 등 가족 관계에 얽히기 싫어서
- 낭만적 관계로부터의 이탈: 누군가와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 결혼 비용 부담: 집, 혼수 등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 자녀 양육 부담: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 가족 생계부양 부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자신이 없어서
- 노동중심 생애전망 추구: 결혼하면 내 직업적 성취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 5] 성별 결혼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

〈표 10〉 결혼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성*하위집단별)

(단위: %)

		제도적 규범으로 부터의 이탈	전통적 결혼·가족 제도 거부	낭만적 관계로부 터의 이탈	결혼 비용 부담	자녀 양육 부담	가족 생계부양 부담	노동중심 생애전망 추구	기타	
여성	계(N=2,092)		26.3	24.6	18.4	8.5	8.4	6.8	5.4	1.8
	주관적 사회경제 적 지위	(최)하층	26.4	26.2	15.2	12.7	7.1	7.1	3.7	1.7
		중하층	26.2	23.8	16.7	8.8	9.5	8.9	3.8	2.3
		중층	26.4	24.2	21.8	6.0	8.5	5.4	5.9	1.8
		중상층 이상	25.7	24.8	20.4	5.8	7.5	3.5	11.9	0.4
		χ^2	65.934***							
남성	계(N=1,931)		21.2	9.0	16.0	20.5	6.7	23.0	1.6	2.1
	주관적 사회경제 적 지위	(최)하층	21.3	6.3	12.6	20.0	7.3	29.1	1.0	2.4
		중하층	20.7	9.8	13.8	24.4	6.3	20.4	1.9	2.6
		중층	19.8	9.0	20.5	17.8	7.2	22.7	1.4	1.4
		중상층 이상	24.8	12.0	18.0	17.2	5.6	18.0	2.4	2.0
		χ^2	48.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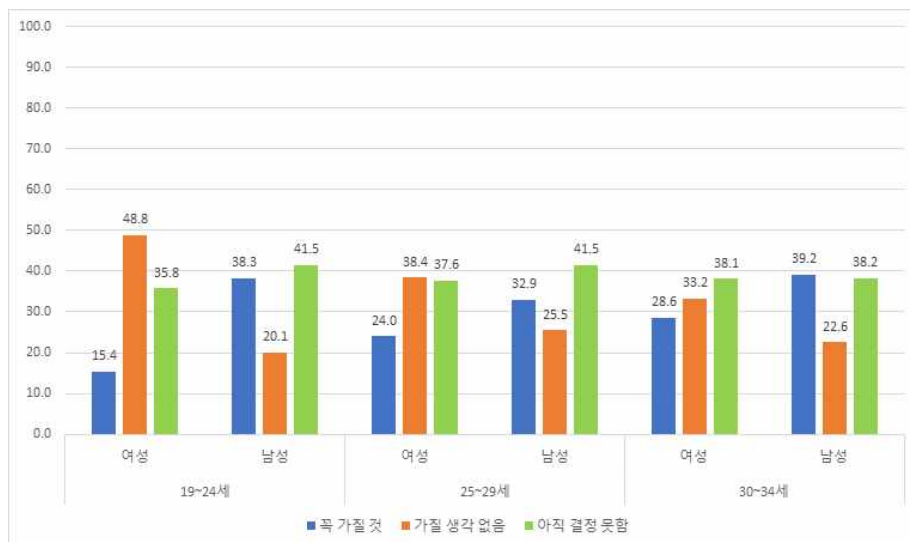
주: 1) * p<.05, ** p<.01, *** p<.001

2) 향후 결혼 의향 문항에서 '결혼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 자녀 출산 의향

○ 자녀가 없는 청년에게 가까운 미래에 혹은 언젠가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여성은 '가질 생각이 없다'가 41.4%로 남성 22.7%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고, 자녀를 꼭 가질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 21.6%, 남성 36.7%로 남성이 훨씬 더 많았음. 성별 격차는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초기 청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향후 친밀성 실천에 관한 남녀의 인식 차이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자녀 출산 의향은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하층이 다른 계층 청년에 비해 남녀 모두 유의하게 낮았음.



[그림 6]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연령*성별)

〈표 11〉 향후 자녀 출산 의향(성*하위집단별)

(단위: %)

		여성(N=2,774)			남성(N=3,211)			전체(N=5,985)		
		꼭 가질 것	가질 생각 없음	아직 결정 못 함	꼭 가질 것	가질 생각 없음	아직 결정 못 함	꼭 가질 것	가질 생각 없음	아직 결정 못 함
전체	전체	21.6	41.4	37.0	36.7	22.7	40.7	29.7	31.4	39.0
	χ^2	286.095***								
지역	서울	19.3	41.8	38.9	33.5	27.5	39.0	26.2	34.8	38.9
	수도권	19.9	43.3	36.8	36.9	22.6	40.5	29.1	32.0	38.8
	지방	24.1	39.8	36.0	37.9	20.6	41.5	31.8	29.2	39.0
	χ^2	9.182			12.971*			19.173***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최)하층	18.6	44.0	37.4	27.5	27.6	44.8	23.6	34.9	41.5
	중하층	21.6	41.0	37.4	36.8	25.0	38.3	29.5	32.7	37.8
	중층	22.4	39.9	37.7	39.3	19.9	40.8	31.1	29.6	39.3
	중상층 이상	24.6	42.5	32.9	44.7	16.4	38.9	36.8	26.7	36.5
	χ^2	7.191			53.573***			49.095***		

주: 1) *p<.05, **p<.01, ***p<.001

2)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만 응답함.

○ 자녀를 가지려는 이유를 물어볼 결과, 여성은 ‘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 자체의 응답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고, 남성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므로’, ‘배우자와 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등 전형적 생애 과정의 일부로서 결혼과 함께 출산을 수용하는 정도가 여성보다 높았음.

- 여기서는 남녀 모두 계층 간 차이 유의하지 않았음.

〈표 12〉 자녀를 꼭 가지려는 이유(성별)

(단위: %)

	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어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므로	배우자와 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노후에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부모님 등 가족의 압력이 커서
전체(N=1,777)	75.7	12.9	8.9	1.1	0.8
여성(N=599)	82.5	8.9	5.5	1.7	0.7
남성(N=1,178)	72.2	15.0	10.6	0.9	0.9
χ^2	32.814***				

주: 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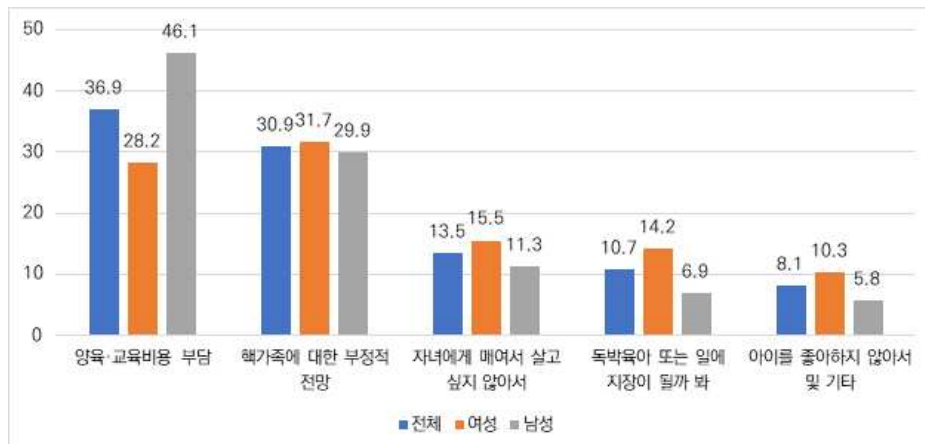
2) 현재 자녀가 없으나 가까운 미래 혹은 언젠가 ‘자녀를 꼭 가질 생각’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함.

3) ‘기타’에 응답한 비율이 극히 낮아서 표에 제시하지 않음.

○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양육·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여성은 남성보다 자유로운 삶, 일에 대한 지장을 우려한 응답이 더 많았음.

- 남녀 모두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비용 부담, 핵가족에 대한 부정적 전망 응답이 높았고, 계층 지위가 높을

수록 자녀에 매이지 않는 삶, 일에 대한 지장을 우려한 응답이 높았고 남녀 모두 유의했으나, 계층에 따른 차이는 여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주: 1) 자녀가 없는 사람 중 ‘자녀 갖기를 망설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그림의 값은 다음과 같이 질문지 보기의 응답 비중을 합친 것임.
 - 핵가족에 대한 부정적 전망: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 아이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 독박육아 또는 일에 지장이 될까 봐: 독박육아를 하게 될 것 같아서 + 자녀를 키우면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까 봐
 -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및 기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 기타

[그림 7] 성별 자녀를 갖기 망설이거나 갖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

〈표 13〉 자녀 갖기를 망설이거나 갖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성별*하위집단별)

(단위: %)

		양육·교육 비용 부담	핵가족에 대한 부정적 전망	자녀에게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서	독박육아 + 하는 일에 지장이 될까 봐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및 기타	
여성	계(N=2,175)		28.2	31.7	15.5	14.2	10.3
	주관적 사회경제 적 지위	(최)하층	28.4	37.0	10.9	11.8	12.0
		중하층	30.4	32.7	14.2	13.1	9.5
		중층	27.8	29.9	17.8	14.5	10.0
		중상층 이상	22.1	24.6	21.7	21.3	10.4
		χ^2	41.785***				
남성	계(N=2,033)		46.1	29.9	11.3	6.9	5.8
	주관적 사회경제 적 지위	(최)하층	48.6	33.7	8.4	5.1	4.2
		중하층	47.1	28.6	11.0	6.8	6.5
		중층	45.9	28.0	11.8	8.4	5.9
		중상층 이상	40.3	30.2	16.0	7.1	6.3
		χ^2	23.402*				

주: 1) * p<.05, ** p<.01, *** p<.001

2) 현재 자녀가 없고 가까운 미래에 혹은 언젠가 자녀 갖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만 응답함.

4. 종합 및 논의

-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결혼, 출산을 더 이상 당연한 생애 단계로 수용하지 않는 경향은 청년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 또 청년세대에서 이성애 핵가족 모델의 규범적 수용이 다분히 계층화되어 있음이 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됨.
 - 비연애, 비혼, 비출산 선택 이유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위기를, 여성은 남성보다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지목하는 경향 역시 확인됨.
- 그럼에도 청년 남녀는 경제적 위기나 불평등한 젠더관계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일부 청년 남성들(계층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일수록)이 경제적 부담과 무관하게 전형적 부부·가족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친밀성 실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적지 않은 청년 남녀가 비연애를 선택하며 이성애 관계 형성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앞의 분석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계층 지위가 낮은 청년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친밀성 위기의 복합적인 양상임.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청년 여성은 노동중심 생애 기획을 추구하는 중간계층 이상의 여성보다는 하층 청년 남성에 더 가까운 경제적 위기를 이유로 전형적/비전형적 친밀성 실천의 경계를 오갈 가능성이 커 보임.
 - 생활비 절약을 주목적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 아이가 생겨서 결혼에 진입하는 과정, 결혼 비용과 가족 생계부양 부담, 양육비용 부담을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꼽는 경향 등이 이러한 양상을 보여줌.
 - 앞서 분석 결과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계층 지위가 낮은 여성일수록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기대가 강하며(4점 중 하층·중하층 여성 각 1.53, 중층 1.46, 중상층 1.48), ‘집안일·육아를 분담하지 않더라도 돈을 잘 버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다는 점(하층 33.4%, 중하층 29.8%, 중층 24.6%, 중상층 이상 26.2%)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
- 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년 여성의 친밀성 실천 양상이 분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같은 결과는 근대적 젠더관계에 기초한 가족 모델의 거부라는 오늘날 청년 여성의 친밀성 실천에 대한 페미니스트 담론이 가진 공백과 효과를 살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계층 지위가 낮은 청년 여성 또한 대중화된 페미니즘의 자장 안에서 친밀성 실천을 모색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하층 여성 응답자 40% 이상이 페미니즘 지지), 경제적 필요가 능동적인 관계 형성의 걸림돌이 될 수도, 동거와 같은 대안적 친밀성 실천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임.

5. 참고문헌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 (2): 27-52.

배은경.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젠더와 문화 8 (1): 7-41.

정성조. 2019. “‘청년 세대’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39.